

2012. 03. Vol 215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

봄이 오는 길목에서

겨우 한 평 남짓,
아버지의 텃밭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은 피고 꽃은 지고
아슬한 먼 기적소리로 다시 봄은 옵니다.

씨방을 익힌 것이 풀벌레 울음임을
꽃씨도, 풀벌레도 다 떠난 뒤 알았습니다

비로소
휘청대던 구도
굴절없이 보입니다.

“에미야
질러가는 발걸음은 숨이 찬 법,
급할수록 돌아가라” 조근조근 이르던
아버지 더딘 발자국 잔설 위에 환합니다.



윤현자

- 1960년 청주출생
- 1995년 중앙일보 신인문학상 수상 등단
- 시조집 '그래, 섬이 되어 보면' '다문다문 붉은 꽃잎' 출간
- 한국시조시인협회원, 충북시조문학회 부회장, 뫼곡문학회원

Contents

2012. 03. Vol 215



담장과 길가, 산들에 지천으로 나앉은 개나리.
꽃망울 비쭉비쭉 터져 나오는 것은 벌써 봄이 다가왔음이다.
해맑은 어린 아이 같은, 소박하고 부지런한 모습처럼 새봄은 우리들 희망이다.

- 4 전통시장 보호·중소상인 지원 협력체계 구축
- 5 관급공사업체 임금체불 근절시킨다
- 6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개선 촉구
- 8 도의회 새해 첫 임시회 열어 업무보고 청취
- 10 제천~평창간 도로 국도승격 건의
- 12 「충북의정 60년사」 발간 추진
- 14 각 상임위원회 활동
- 20 5분 자유발언
- 22 주요 처리의안
- 24 의정활동 이모저모
- 26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 28 건강·세무상식
- 30 의원논단
- 31 의정일기



11



충청북도의회 - 4개 시·군 의장단 연석회의 개최

전통시장 보호·중소상인 지원 협력체계 구축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조례 논의

충청북도의회가 우리지역의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중소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시·군의회의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도의회 김형근의장은 지난 2월 21일 제천시의회의 의장실에서 청주시의회의 연철흠의장, 충주시의회의 김현식의장, 제천시의회의 최중섭의장, 청원군의회의 하재성의장 등 4개 시·군 의장단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갖고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 대형슈퍼마켓)에 대한 공동 규제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의장과 시·군의의장단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도내에는 3개 시 지역 및 청원군에 대형마트와 SSM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의장단은 연석회의에서 ▲4개 시·군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제한할 것 ▲4개 시·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일수를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로 지정할 것 ▲대형마트 등에서 지역 농·축·특산물 판매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기초단체장이 대형마트에

권고할 것 ▲도지사가 판매실태를 조사한 후 판매 비중을 높이는 방안 ▲지역 전통시장, 상점이 보호와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의회와 시·군의회의 협의를 지속 추진하며 사안에 따라 12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시·군 조례안에 담기로 합의했다.

의장단은 이날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각 이해관계 집단의 여론을 수렴해 3월부터 조례개정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같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공동대응책 마련은 지난 1월 11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연석회의는 충청북도의회 김형근 의장 제안으로 개최됐으며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함께 지역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에 대한 공동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는 앞으로 시·군 의회와 협력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인 대안을 강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관급공사업체의 임금체불 근절시킨다

도의회, 임금체불 없는 관급공사운영조례안」입법예고

근로자·하도급업체 보호 방안 제도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의회가 관급공사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충청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충북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와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도가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 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도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공사 감독자는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 지급 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하고 계약 담당부에서는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 업체를 관리해야 한다. 도는 계약특수 조건에 따라 대가 중 일부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금지급 우수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평가하고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도지사는 사업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고 특별장학생 조례 일부 개정

충북도의회는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 장학생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개정한다.

지난 2009년에 제정된 특별 장학생 조례는 도내 중·고등학생 입학 대상자 중 성적이 우수하고 특별한 재능이 있으나 학비부담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의 기회균등과 인재양성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조례 목적과 특별 장학생 요건 간에 불일치한 부분이 있고 특별장학금 기회제공 확대와 공정성에서 일부 한계가 노출돼 이번에 일부개정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

입학 대상자 중 학업 성취도와 특별한 재능, 모범생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한 이 조례는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을 감안하도록 했다. 또한 특별 장학생의 선정을 각 학교 학교장이 교무회의를 거쳐 중학생은 교육장에게, 고등학생은 교육감에게 추천한 뒤 심사위를 거쳐 최종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자치단체 추가 보육예산 확보에 ‘허덕’

도의회,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

정부에 국비부담 확대 - 국가책임 강화 요구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을 일방적으로 과중하게 책정하자 충청북도의회가 중앙정부 부담 확대 등 정책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에서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 3,697억원이 증액되자 정부는 3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0~2세 영유아의 보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런데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만5세아 지원과는 달리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은 사업비의 40%~50%를 지방비 부담으로 떠넘겼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국비 증액분에 대한 지방비 분담분 116억원과 앞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증가에 따른 지방비 500여억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추가적인 지방비 분담은 도와 시·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도의회는 3월 임시회에 무상보육 정책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대통령과 관련 부처에 보낼 계획이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무상보육 확대가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정책방향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0~2세 영유아 보육료 전면 확대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내년부터 보육료 국비 분담률을 9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어린이집 이용이 절실한 3~4세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조기 확대와 공보육 인프라 구축, 정책 결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정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연합회의도 지난 1월 무상보육료 전액 국고지원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성 강

<영·유아 보육사업 확대계획>

● 보육료

구분	현행	2012. 3~	2013년
0~2세	▶ 대상 : 소득하위 70% ▶ 지원단가 • 0세 394천원/월 • 1세 347천원/월 • 2세 286천원/월 ※ 국비 50% 지방비 50%	▶ 대상 : 전계층 ▶ 지원단가 → 변동없음	▶ 대상 : 전계층 ▶ 지원단가 : 미정
3~4세	▶ 대상 : 소득하위 70% ▶ 지원단가 • 3세 197천원/월 • 4세 177천원/월 ※ 국비 50% 지방비 50%	▶ 변동없음	▶ 대상 : 전계층 ▶ 월 220천원 ※ 국비+지방비로 하 되 추가소요는 교 육재정 부담금으로 지원 ※ 2015부터 교육재 정 교부금으로 전 액지원
5세	▶ 대상 : 소득하위 70% ▶ 지원단가 : 월177천원 ※ 국비 50% 지방비 50%	▶ 대상 : 전계층 ▶ 월 200천원 ※ 교육재정교부금 100%	▶ 월 220천원

● 양육수당(시설 미이용 아동)

구분	현행	2012. 3~	2013년
시설 미이용	▶ 대상 : 0~2세 차상위 이하 가구 및 취약계층 만 5세이하 등록장애아동 ▶ 지원단가 : 월 10~20 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변동없음	▶ 대상 : 0~2세 소득 하위 70% 및 취약 계층 만5세이하 등록 장애 아동 ▶ 지원단가 : 월 10~20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도의회의회장협의회는 결의문에서 “보육정책이 영유아를 미래 인적자원으로 잘 길러내야 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와 재정 대책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도의회의회장협의회는 △ 만0~2세 무상보육료의 전액 국고 지원으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할 것 △ 어린이집 이용이 절실한 만 3~4세의 무상보육 추가 전면 실시 △ 정부와 국회는 보육사업과 같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



렴을 거쳐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도록 작성할 것 등을 촉구했다.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개선 촉구 건의안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와 재정마련에 대한 대책 없이 추진되고 있어 무상보육 정책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건의 합니다.

첫째, 0~2세 보육료의 전면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내년부터 보육료 국비부담률을 현재 40~50%에서 9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보편적 복지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질 것.

둘째, 금년도 도입한 5세아 누리과정사업을 어린이집 이용이 절실한 3~4세 유아에게도 조기 확대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공보육 인프라를 적극 구축할 것.

셋째,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따라 보육시설 보강 및 확대는 물론 보육교사들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개선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줄 것.

넷째, 정부와 국회는 보육사업과 같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의 결정과정에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합니다.

2012년 3월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 제306회 임시회를 열고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현안을 처리했다.

도의회 새해 첫 임시회 열어 업무보고 청취

다양한 정책 제안- 문제점 보완책 주문

충북도의회가 임진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듣고 올해 추진되는 각종 사업내용을 협의했다.

도의회는 지난 1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06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체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한 후 다양한 정책제안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업무보고에서 이시종 도지사는 충북의 미래 성장동력인 생명산업과 태양광 산업을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는 것 등 8가지 역점시책을 제시했다. 이기용 도교육감은 ‘배움이 즐거운 학교 실현’ 등 5대 교육시책을 제시하고 35개 과제를 추진해 충북교육이 더욱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의회는 1월 임시회에서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의 국도승격 건의문을 채택해 관련 부처에 요청했으며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이시중 도지사 주요업무계획 보고

“강한 충북 건설 중부권시대 중심으로”



이시중 도지사

이시중 도지사는 새해 주요업무보고에서 ‘보다 큰 충북’, ‘보다 강한 충북’, 중부권 시대의 중심’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8가지 시책을 제시했다.

이시중 도지사는 첫번째 도정운영 방향으로 충북 100년 미래의 성장동력인 생명산업과 태양광 산업을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9월까지 오송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6월에 오송 제2생명 과학단지를 착공하겠다는 것.

두 번째는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

원 확대방안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고용 우수업체 청년인턴 취업지원, 고교 졸업자 채용활성화,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햇살론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시중 도지사는 △ 가장 모범적인 복지 충북을 만들기 △ 충청 내륙고속화도로 2014년 조기 착공 등 적극적인 균형발전 사업 추진 △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및 농촌 살리기 △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예술과 체육, 그리고 매력 있는 충북형 관광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개발 △ 대규모 국제대회 성공개회와 국제기구 유치 등을 통해 ‘세계속의 충북’, ‘충북의 세계화’ 추진 △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한 도정의 효율성 향상을 제시했다.

이기용 도교육감 교육시책 보고

“배움이 즐거운 학교 등 5대 시책 실현”



이기용 교육감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새해 교육시책 보고에서 5대 교육시책과 35개 추진과제를 통해 충북교육이 더욱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5대 교육시책으로는 첫 번째 ‘배움이 즐거운 학교 실현’으로 토요프로그램 운영과 생활지도 강화를 통해 주5일 수업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창의적 미래 인재 육성’으로 교과활동과 체험활동 등 교실수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창의·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10개 교과 50개 연구회를 지원

할 계획이다.

셋째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람 육성’으로 자녀와 함께하는 아버지학교 운영, 범도민 행복한 인사 나누기, 기본생활 규범 실천운동, 사랑의 효도전화 365운동 등 생활예절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넷째, 신뢰받는 참여행정 구현으로 교원의 행정업무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배치,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이 추진된다.

끝으로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 방안으로 2년 차 무상급식의 내실 있는 운영, ‘5세 누리과정’의 조기 정착,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시했다.

도의회, 82호선 국도승격 요청 건의문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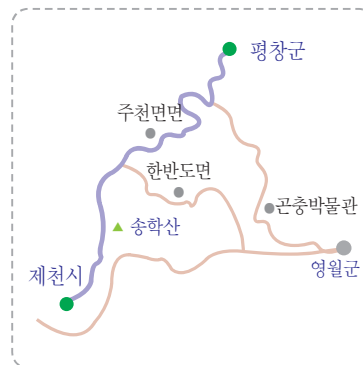
제천~평창 연결도로 조기 확포장 촉구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 동계올림픽 성공 지원

충북도의회가 2013년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 시설로 충북 제천~강원도 평창을 연결하는 국가지원 지방도의 4차로 조기 확포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 1월 19일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국가지원 지방도 82호선 국도승격 건의문’을 채택하여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문화관광부장관, 그리고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전달했다.

충북 제천~강원도 평창 간 도로를 4차로로 확포장하기 위해서는 국비사업 추진이 필수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국가지원 지방도인 현재의 도로 등급을 국도로 승격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도의회는 82호선 국도승격 건의문에서 낙후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충북 제천~강원도 평창 간 국지도 82호선을 국도로 승격시켜 4차로 확·포장공사를 국가에서 조기에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충북 제천~강원도 평창 간 35.4Km 구간의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은 노폭이 좁고 급경사가 많은 곳으로 손꼽혀 왔다. 선형 불량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으며 물류비도 많이 들어 도내 북부지역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와 평창 동계올림픽의 연계추진을 위해 확포장공사가 절실한 상황이며 청주~제천 간 충청내륙고속

도로를 평창까지 연장한다는 효과도 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충북과 강원도계에 위치한 제천~평창 간 국가지원 지방도 82호선이 2개 도 3개 시·군을 통과하는 주요 간선도임에도 불구하고 노폭이 협소한 2차로로 선형 개량과 확·포장 공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의 제 3차 국가지원 지방도 5개년 계획(2011~2015년)에서 제외되어 열악한 지방 재정 형편상 대회개최 전까지 건설이 어려운 실정으로 전폭적인 국가재정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 국도 승격 건의문

우리 도는 영동~충주~제천 간 충청고속화도로 건설을 추진 중이며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이 사업이 평창까지 연결돼야 함을 누차 건의 드린바 있습니다.

충북과 강원도계에 위치한 제천 ~ 평창 간 국가지원 지방도 82호선은 2개 도, 3개 시·군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이나 연장 35.4km가 노폭협소, 선형불량, 급경사로 교통사고와 물류비용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제3차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계획

(2011~2015)에서 제외되어 대회 개최 전까지 건설이 어려운 실정이다.

충북·강원의 낙후지역 균형발전 촉진과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제천 ~ 평창 간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을 국도로 승격시켜 4차로로 확·포장해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2012. 1. 19.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도의회 청주대 정외과 전문인력 양성 협약

특성화된 전문인력 양성... 상호 유기적 협조 다짐



◀ 충청북도의회와 청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가 2월 2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특성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동협약을 체결했다.

충북도의회가 청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특성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지난 2월 2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김형근

도의회의장과 최진섭 부의장, 박분희 의회운영 위원장, 청주대학교 양병기 정치외교학과 학과장과 관련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충청북도의회와 청주대외교학과는 이번 협약식에서 특성화된 전문인력 양성과 충청북도의회에서 권장하는 교과목을 교육과정

정에 편성하는 데 합의했다. 또 주문식 교육실시와 교육과정 반영, 교육교재 개발과 운영에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같은 협약에 따라 주문식 교육과정에 현장학습 포함을 비롯해 정례회 및 임시회에 학생들의 참관과 방청, 대학교육 참여, 학술정보 및 간행물의 상호교환, 각종 세미나 워크숍 개최, 각종 문화행사 상호 초청 등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형근 의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청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우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풍부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공교육과 관련된 특성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됐다”며 “학생들은 언제나 도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 의정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창의적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박분희 운영위원장 전국운영위 협의회장 선출



박분희 운영위원장이 1월 27일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된 제 12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이해 관련 현안사항을 사전 협의하여 채택된 안건을 의장협의회에 상정하며, 의회 운영에 필요한 상호정보를 교환하여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충북도의회 '60년 발자취' 책으로 엮는다

올해 「충북의정 60년사」 발간 추진

충북도의회가 올해로 개원 60주년을 맞는다.

도의회는 1952년 첫 개원 이래 뜻 깊은 60주년을 맞아 올해 '충북의정 60년사'를 발간할 예정이다.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와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발간하게 될 '충북의정 60년사'는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문 연구기관인 충북발전연구원에 위탁용역으로 만들게 된다. 서문과 본문, 부록으로 구성되는 충북의정 60년사는 다양하고 알찬 내용들로 꾸며진다. 서문에는 발간사와 축사, 사진으로 보는 충청북도의회 발자취가 실린다.

'도의회 발자취'에는 역대의장 이름과 사진, 1대~9대까지 의회 활동사진, 의회기와 의원배지, 의사봉 등 특색 있는 사진들로 구성된다.

5개 파트로 지면이 구성되는 본문에는 지방자치와 도

의회의 역사와 미래가 담긴다. 제 1편 '충청북도의 역사'에는 충북도 역사와 주요특성, 현황 등이 수록된다. 제 2편 '한국지방자치의 역사'에는 한국지방자치의 역사와 변천 주요 선진국의 지방자치, 한국지방자치 부활 전후 비교, 현행 제도상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이 실린다. 제 3편 '지방자치의 개막과 충청북도의회의 성립'에는 제도의 개괄과 선거, 의회구성, 의정활동 및 성과가 게재되고 제 4편 '지방자치의 부활과 충북도의회의 발전'에는 시대적 배경과 경위, 의미, 제도 개괄과 의회 구성 등이 수록된다. 마지막 제 5편 '도의회 발전방안 미래상'에는 의정활동 성과 및 평가 개괄, 도의회의 미래상, 활성화 방안 등으로 구성된다. 부록에는 역대 도의원 당선자 현황과 도의회 관련 통계자료, 신문자료, 의회일지, 의안처리 현황 등이 게재된다.



의회운영위원회

(제306회 임시회)

기능 중심의 의정활동 지원 주문



▲ 1월 10일 1차 운영위원회에 앞서 간담회를 열고 201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논의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문희)는 제306회 임시회 회기 중 2차례 운영위원회를 열어 2012년도 충청북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원안 가결했다.

1월 10일 실시된 의회사무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는 의회사무처장은 의회기능 강화를 통한 위상 제고, 도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의정 구현, 알찬 회기운영 및 상시의회 구현, 의정활동 역량기반 강화 등 7대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17개 이행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년도는 도의회 출범 60주년을 맞는 해로 충북 의정 60년사 및 화보집 발간, 9대의회 후반기 원구성, 의원 휴게숙소 구입 등 의정현안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도정 또는 의정 주요현안이나 이슈사항의 올바른 정책

진단을 위해 주민참여 토론회 개최 등 연구·연찬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금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계획은 일반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소극적 기능에서 현안문제에 대한 대안제시, 새로운 정책발굴 등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제시와 견제감시 등 기능을 중심으로 추진해 줄것을 주문했다.

또한 ‘충북의정’ 소식지를 교육지원청을 비롯해 특수 학교까지 확대 배부하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연찬회가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다라고 요구했다. 1월 19일 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3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3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개최하기로 확정하고 도정 및 지방교육행정 분야에 대한 질문과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정책복지위원회

(제306회 임시회)

청렴도 평가 시스템 정비 요구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심기보)는 제306회 임시회 기간 중 충청북도 기획관리실 등 5개 실·국을 비롯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에서 의원들은 우리 도가 작년도 행정안전부의 공직윤리제도 평가에서는 최우수도로 평가 받았는데 며칠전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혼선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 후 공직 청렴도 관련 단일화된 평가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이어 충북도립대학의 등록금 30% 인하가 도내 다른 대학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등록금 인하로 인한 성과 등을 분석·평가하여 향후 추가 인하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많게는 하루 12시간을 근무하면서도 100여만 원에 불과한 보수를 받고 있는 등 어려운 환경에 있으므로 처우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도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에 문제점이 있을

을 지적하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교급식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교급식 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너무 소극적이며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권역별 급식지원센터 건립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인재양성재단에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200만 원으로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초·중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재검토와 대학생 장학금을 현실화 하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인재양성재단 장학금 중 도내대학 장학금은 재단에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대학교의 총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정한 선발로 꼭 필요한 대상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충북발전연구원의 역할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데 정원대비 현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인력 보충 등 연구원의 기능 강화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 1월 19일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앞서 간담회를 실시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306회 임시회)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제정



▲ 1월 16일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있다.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병윤)는 제306회 임시회 기간 중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도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 의결했다.

먼저 공보관실, 행정국, 자치연수원,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문화관광환경국 등 소관부서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 위원들은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된 주요 현안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원투자 대비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조례안 심사로 정지숙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이행 자체가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숭고한 의무로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으며 병역의무를 다함에 있어 자부심 고취와 그에 상응한 예우를 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본 조례는 가족의 3대(조부, 부, 백부, 숙부, 본인, 형제, 사촌형제 등)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선정 후 사회적 예우를 위해 도지사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주위에서 존경 받을 수 있도록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도 주관 행사의 입장료 면제, 도 부설 주차장 사용료 50% 감면, 청남대 등 도 산하시설의 입장료 면제 등 우대를 하도록 돼 있다.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충청북도가 최초로 제정하는 것으로 타 광역자치단체에도 전파되어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원들은 1월 17일 남부지역 주민편의와 “함께 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개청하는 충청북도 남부출장소를 방문하여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한 후 북부출장소 개청에 이어 남부출장소 개청으로 지역균형발전의 큰 그림이 완성된 것을 보은, 옥천, 영동 남부3군 주민과 함께 축하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제306회 임시회)

도 차원의 FTA대책 마련 촉구

임진년 새해를 맞아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봉희) 위원들은 서로 합심하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도민 모두가 번창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먼저 1월 12일 오전에 실시된 경제통상국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통해 FTA 체결에 따른 우리도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도 차원에서 추진할 정책들을 발굴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도내 태양광업체들이 중국의 저가 재고품 증대와 유럽재정 위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태양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에 조성중인 MRO 단지 조성시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후에 실시된 농정국 주요업무계획 청취에서는 2012년 당초예산에 대비 20억원으로 편성된 FTA 대응 POOL 예산이 좀 더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

록 세부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을 요구했고 충북도가 유기농 특화도가 되기 위해서 우선 친환경 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 소값 안정을 위한 한우암소도태자금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해 줄것을 당부했다.

이어 농업기술원 주요업무계획 청취에서는 FTA 및 이상기후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곳이 바로 농업기술원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기존 사업과 차별화되는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 할 것을 당부했다.

13일에는 4개 출연기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1사1촌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농협과 협의하여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신용보증사고가 늘어나는 주요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제천에 있는 한방산업관에 다양한 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 1월 12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을 방문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받고 있다.

건설소방위원회

(제306회 임시회)

효율성 위주의 업무추진 당부



▲ 1월19일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의 국도승격과 4차로 확포장을 조기에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권기수)는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서 소관부서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집행부가 의회와의 교감과 소통을 위하여 노력해 줄 것과 실적위주의 업무추진이 아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균형건설국 업무보고에서 국도·지방도 확·포장사업, 국가 철도사업, 지역균형발전 사업 그리고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개발 사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였으며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모든 사업들이 괄목할만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균형발전 사업은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민자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과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는 지역의 건설업체가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균형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사업을 계획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줄 것도 주문했다. 바이오밸리추진단 업무보고에서는 오송첨복단지·

바이오밸리·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정착할 수 있는 정주여건의 조속한 조성은 물론 교육도시에 걸맞은 자율형공립고 같은 우수한 교육시설 확보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리고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해 새로운 사업 발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1월 19일 개최한 위원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부처에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의 국도 승격과 4차로 확포장을 조기에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국도로 승격 시 충북이 부담해야 할 토지보상비 등 도로조성 사업비가 획기적으로 감액된다는 점이다. 또 강원도 시·군 의장협의회와 보조를 맞춰 건의문을 채택함으로써, 그 실현성에 대한 전망을 더욱 밝게하고 있다. 한편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교육위원회

(제306회 임시회)

학교폭력 근본대책 마련 요청

교육위원회(위원장 최미애)는 제306회 임시회 기간 중 제천시 청풍초등학교 양평폐교의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는 내용의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심사하고 2012년 충북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교육위원회는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지난 1월 12일 제천시 청풍초등학교 양평폐교 부지 및 건물 매각 현장을 방문해 충북교육청, 제천교육지원청 및 제천시청 관계관으로부터 청풍지구 황토체험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양평폐교의 활용 방안을 보고받고 매각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교육위원회는 제천시가 추진하는 테마공원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관련 사업을 철저히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지난 1월 17일 열린 제1차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청 11개

부서(감사담당관 및 교육국 5개과, 관리국 5개과)로부터 2012년 주요사업과 현안문제를 보고받고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계획 했는지와 추진상의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했다.

특히 주요사업 추진과 관련해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추진 현황과 운영 계획을 확인하고 향후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을 타 기관의 사업과 비교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원어민 교사와 우수한 외부 인력을 활용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영어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한 후 교육기부 운동에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과 유관기관이 함께 동참하는 근본적인 대책과 대응 매뉴얼을 수립할 것과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배정과 관련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통학여건과 거리를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받고 교육청을 비롯한 유관기관이 함께 동참하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5 분 자유발언

“농산물 가격 보장 조례 제정해야”



정헌 의원

2010년 추석 무렵이었습니다. 전년도 500원 이던 배추 한포기 가격이 최고 1만 5천원까지 올라 일명 ‘금배추’로 불릴 만큼 가격이 폭등하여 전국이 떠들썩했고 배추로 김치를 담가야 했던 국민들은 치솟는 배추 값에 망연자실 했습니다. 2010년의 금배추 가격은 작년 다시 폭락하여 포기당 1천원 미만까지 떨어져 화난 농심은 배추밭을 갈아엎었습니다. 매년 김장철만 되면 배추가격은 널뛰기 하듯 그 등락폭이 심해 소비자와 농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으며 더 이상 정부의 농업정책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하였을 때 사전 계약제배 등을 통해 참여농가의 물량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일정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배추의 경우 가격이 폭락하였을 경우 산지에서 폐기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칭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를 제정함이 농가의 경영안정에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시종 지사님과 집행부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건의드리며 이를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조례는 도지사 선거 공약 사항이기도 하니 올 상반기 안에 조속히 제정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책임의식 · 성실성 필요”



박문희 의원

의원님들과 집행부간에, 그리고 교육위원회와 교육관계관 여러분과는 혼자 존립할 수 없는 공생공존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이를 통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허황된 꿈을 접고 겸허한 자세로 항상 정의를 향해 맡은바 임무를 다 하면 우리의 가슴에 웃음으로 남아 사랑이 꽃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불성실한 답변과 업무 속 지 미숙은 하나의 흠으로 남았고 의회를 경시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관계 공무원의 답변 자세야말로 공직자의 기본을 망각한 것 같아 실로 유감스러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의 요청을 할 때에는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의회에 심의 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향후 담당자 및 관계 간부들이 꼼꼼하게 살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 다시는 잘못된 예산의 편성이나 기준에 어긋나는 예산집행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즘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학교폭력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 확립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와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자율교육을 통한 정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올 한해 좀 더 발전되고 희망이 넘치는 충북교육의 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학교폭력 교육주체 모두의 과제”



이광희 의원

청주에서도 얼마 전 중학생의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죽음을 결심하기까지 누구도 그들에게 상담자가 되어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 자성하는 자세로 사회 전체가 각자 문제의 원인을 찾는 변화와 실천 의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접근은 크게 교사와 교육관계자, 학부모, 지역사회 세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학교입니다. 성적위주의 교육과 치열한 학업경쟁이 팽배한 현재의 충북 학교문화에서는 학교폭력 등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현실이 도외시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존중감과 배려, 이타심, 도덕성이 살아 있는 인성교육입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피해 학생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하며 기존의 위클래스와 위센터, 위스쿨, 생활지도 및 상담과 관련된 운영의 내실화를 다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부모입니다. 자녀의 문제를 학교의 문제로만 미루는 태도를 버리고 학교와의 소통과 공감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입니다. 학교밖에서도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확대와 전문인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관련 기관들이 연대책임 의식을 갖고 상호간의 협력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합니다.

혁신도시 균형있게 건설돼야



이수완 의원

충북혁신도시의 추진현황을 되짚어보고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앞으로의 개발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진천·음성 혁신도시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11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교육문화, IT·BT 산업이 어우러지는 신도시가 조성되어 중부권 발전의 거점도시로 자리잡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혁신도시는 충청북도의 핵심시책으로 진천군, 음성군 행정구역에 절반씩 걸쳐서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을 보면 상업용지의 88%, 공장용지는 100%가 음성지

역에 배치됨으로써 지역 간 크고 작은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16차에 걸친 기본계획과 토지 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마스터플랜을 완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충북혁신도시는 단 한 번의 수정·보완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의원이 1년 전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음에도 그 때마다 도에서는 ‘검토하겠다’, ‘보완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 결과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혁신도시라 할지라도 공동주택이나 학교를 양 지역에 균형 있게 건설하여 진천지역 주민들이 당초에 가지고 있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고,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우수한 주거여건을 신속히 제공하여 ‘평생 살고 싶은 도시로서의 혁신도시’가 되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의회, 청주·청원 통합 적극 지원키로

2012년 1월 19일 이시종 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가 전격 회동하여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기본원칙을 거듭 확인하고 통합추진 세부방안과 일정을 밝혔다. 이와 관련 충

북도의회는 도의회의 역할 부분은 충북도에서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한 사항임을 밝히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의회와 시·군의회는 적극적으로 조정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혔다.

<도지사·시장·군수 통합 원칙과 일정 재천명>

청주·청원통합에 관하여는 2010년 8월 11일과 2011년 10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합의한 대원칙과 일정을 준수한다.

첫째, 통합의사 결정은 기 합의한 대원칙에 따라 금년 6월 중 결정한다.

둘째, 청주시는 청원군민협의회가 요구한 청주시민협의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한다.

셋째, 청주·청원 통합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시장·군수가 기 합의한 대원칙과 일정의 범위 내에서 청원군민협의회와 청주시민협의회간 협의·조정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건의하고, 청주시장과 청원군수는 청원군민협의회와 청주시민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수용하되, 협의·조정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주시장과 청원군수가 별도로 협의·조정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기서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은 도지사와 시장·군수, 도·시·군의회 의장 및 군민협의회·시민협의회 대표 각 4명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넷째, 청주·청원 통합에 관한 세부사항은 2012년 6월 통합의사 결정이전에 결정함을 대원칙으로 하되, 그때까지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법 입안 전까지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중심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정지숙 의원)

[제안이유]

-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함

[주요내용]

- 충청북도지사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발굴,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발굴·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도지사는 병역명문가가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입장할 때에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는 병역명문가가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 의거 설치한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도록 함
- 도지사는 병역명문가가 청남대 등 도산하기관 시설에 입장할 때에 입장료를 면제해 주도록 함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2011. 12. 30.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중복으로 규정된 감면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하는 한편, 2011. 12. 31로 만료되는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12. 12. 31까지 연장하여 개정코자 함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자동차좌이체에 대한 세액공제액
 - ※ 감면기간 연장 : 2012. 12. 31.까지
- 감면조례 적용시한 연장(2011. 12. 31 → 2012. 12. 31)
 -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취득세 면제)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취득세 면제)
 - 지역특산물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취득세 면제)

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시·도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심의 등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위촉위원의 임기 및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

주요처리의안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 국도승격 건의안

(제안자 :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주문]

-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및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낙후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하여 제천~평창간 국가지원도 82호선을 국도 승격 및 4차로 확포장을 국가에서 조기에 시행해 주도록 건의안을 채택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 국도 승격 및 4차로 확포장
 - 충북 제천 ~ 강원도 평창간 35.4km(충북 9.1, 강원 26.3) 구간
 - 노폭협소, 급경사, 선형불량으로 교통사고 다발 및 물류비 증가 등 도내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에 저해
-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연계추진
 - 세계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시급
 - 청주~제천간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평창까지 연장
-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국도 승격 및 4차로 확·포장공사 시행
 - 열악한 재정 형편상 조기 건설이 지난한 실정
 - 국가정책에 국도승격, 4차로 건설계획 반영 지자체 공동 건의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제천시에서 제천시 청풍면 일원에 청풍토티 황토체험 등 청풍지구'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청풍초등학교 양평폐교가 편입되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회의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재산의 처분(단위 : m², 천원)

기관명	구분	사업명	수량	금액
제천교육지원청	토지	청풍초 양평폐교 토지 처분	9,344	560,640
	건물	청풍초 양평폐교 건물 처분	577	81,555
합계		(2건)	9,921	642,195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발의자 : 박문희, 강현삼, 장선배, 김종필, 김희수, 황규철, 정현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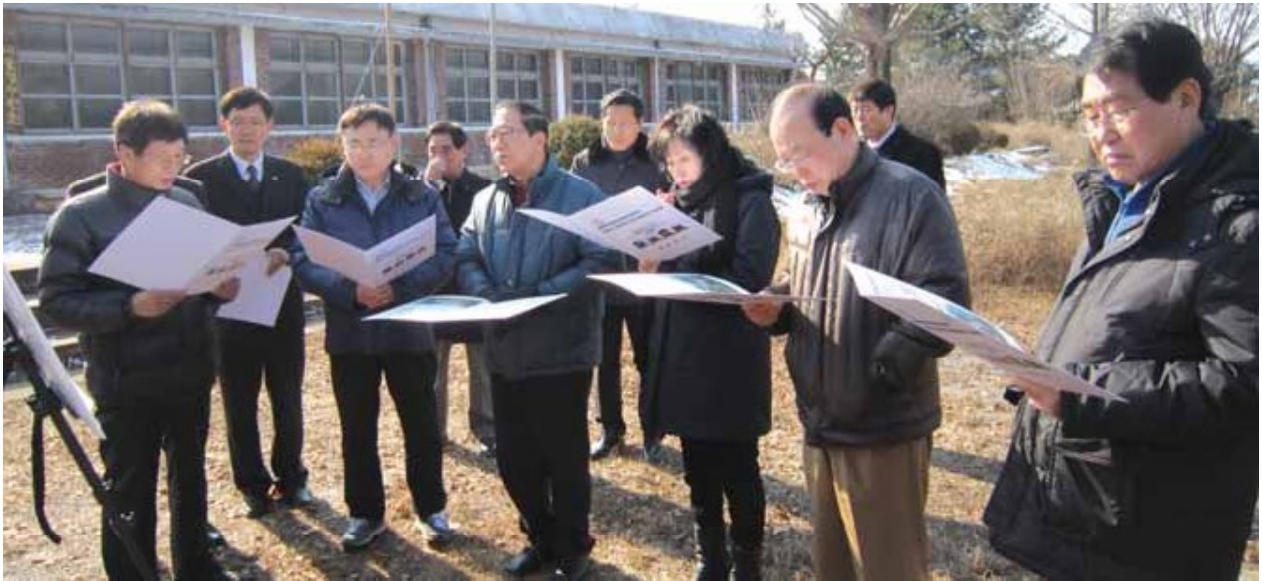
[주문]

- 도정 및 지방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

[제안이유]

- 제3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 및 지방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지방교육행정에 반영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





▲ 청풍초등학교 양평폐교 방문

교육위원회는 1월 12일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와 관련하여 제천 청풍초등학교 양평폐교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과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 MBC 신년대담

김형근 의장이 1월 2일 MBC TV 신년대담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해 2011의 정평가 및 2012의 회운영방향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 기능지구 마스터플랜 보고회

1월 12일 김형근 의장과 박문희 위원장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청원 기능지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 참석하여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 의회 사무처 시무식

1월 2일 김형근 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청주 상당산성에서 시무식 겸 자연정화 활동을 마치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1월 18일 김형근 의장은 집무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김영희 회장에게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사랑과 봉사정신을 실천하는 적십자사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 노인의료복지시설 위문

김형근 의장과 손문규 부의장, 박문희 의원 등은 1월 10일 등 사무처 간부들이 고유명절인 '설'을 뚝아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성심노인요양원'을 방문하여 입소 어르신들을 위로했다



▲ 충북농업기술원 방문

산업경제위원회는 1월 12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을 방문하여 식물조연구실에서 조광환 원장으로부터 식물조직배양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공항~中하얼빈 전세기 '고공비'

충북도의회가 지난해 11월 충북 강성을 방문한 성과가 올해 초 결실을 맺었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국제공항-중국 하얼빈 노선이 중국 대표적인 항공사인 남방항공이 맡아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20일까지 151석의 규모로 1년간 주1회 52편 운항한다.

하얼빈국제노선은 중국 북부강성 관계자가 지난 13일 충북을 방문해 사전답사 활동을 한데 이어, 18일에는 서덕호 정부부처를 비롯한 도 관계자가 북부강성을 방문해 도시사의 전세를 성장에 전달하고 전세기 취항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충북도의회 의장단 북부강성 방문성과 남방항공, 1년간 주1회 52편 운항기로

하면서 전세기 취항에 상호 적극 협조한다는 후속조치로 알려졌다.

서덕호 정부부처는 협약체결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기 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은 여객선 의회의 역할이 집행부보다 상호협조적인 면이 크다. 중국과 관련한 사람들은 의회의 활약에 따라 관계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올 3월에 북부강성 의회 대표단이 충북을 답방할 예정인데, 또 자원의 주요적인 협조와"

유치와 250여 명이상의 하얼빈의 석유 등 에너지 자원 등 바이오와 연계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청주국제공항의 기노선은 태국 방콕(1회), 중국 베이징(1회), 항저우(대한항공)만 타이베이(주 3회) 정도다.

부정기 노선은 씨웨이, 연금, 카오순(각 주 1회) 노선이 추가될 예정이다. 정기·부정기 노선 10개 노선이 취항할 예정이다. 청주국제공항 개항, 활주로 연장 등 한 해 40만 명의 외국인 유입을 국제노선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충북일보

2012년 01월 20일 (금)
04면 정치
이광희 도의원

"학교폭력 다함께 해결해야"

학교 폭력 문제가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거론됐다.

이광희(민주통합당·청주5·서진) 충북도의원은 "학교폭력문제는 우리 지역사회의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를 짚어보고,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해 우리 지역사회의 전체가 이에 대한 공감대를 함께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은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 친구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없었다"며 "안타까운 우리 교육

충청타임즈

충북도의회 임시회 폐회... 5개 안건 처리

정지숙 의원 발의 '도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안' 등 의결

충북도의회는 19일 제306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모두 5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도의회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지숙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발의한 '충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각 상임위에서 심사 부의한 3개의 조례안을 의결 처리했다.

또 권기수 건설소방위원장(민주통합당)이 제안한 제천시와 강원도 영월·평창군을 연결하는 도로의 조기 국도 승격이 담긴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 국도 승격 시급'을 의결했다.

이 밖에 처리된 안건은 △충북도지사·충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충북도 도세입 조에 전부 개정 조례안 △충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이다.

김형근 도의회 의장은 "이번 회의는 짧은 일정에도 각 상임위원회의 발로 소관 업무보고와 민생현장을 확인하는 등 역동적이고 다양한 활동으로 의미가 큰 회의였다"고 말했다.

忠清日報

2012년 01월 18일 (수)
19면 오직나선

외국 교사들의 학교폭력 원인과 대처

세상을 보며



장병학
충북도의회 교육의원

지난해 연말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학교폭력 문제가 전국을 요동치고 있다. 농·어·어촌과 교육·교육과학기술위원회까지 전국 교육관청을 소집하여 대책을 학교 폭력 수습을 하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강릉도 2012년 민생 지향의 최대 중요 정책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학교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전국적으로 산성(山性)을 학교가 폭력(暴力)이 날로 증가하면서 '자살 공화국'으로 변하는 국가 위기까지 도발한 비극적인 현실은 안타깝지만 하다.

외국과 교사, 교수들은 본 학교폭력 대책방안에 대한 피담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다.

인간답게 사는 법

스웨덴 교사는 사회가 아이들의 폭력성을 키운다면 아이들은 사회에서 보고 배운 폭력을 학교에 와서 그대로 휘두른다고 했다. 독일 교사도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보다는 학교 밖의 폭력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인원은 물론, 모든 학생들에게 직접 알려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역할 바꾸기' 놀이를 통해 학생들 자신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 교사는 폭력 사건을 경감하려면 달리지 말고, 경감, 교사, 학생들이 협력해야 할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스웨덴 교사는 자기 나라의 폭력 문제가 커지면 경찰이 개입하는데, 사도가 확인하기 전에 심리학자나 지역봉사자들을 통해 상담 받는 방식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독일 교사는 학교에 경찰 한 명이 매일 학교에 와서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문제가 생긴면 경찰과 상담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대안으로 구상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 덴마크 교사는 학교폭력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냐는 학교 수업을 한다. 학생들이 좋은 인간관계 맺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간관계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스웨덴 교사는 공동체 활동을 역설하며, 어떤 일에는 함께하면 싸움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산해와 우애를 함께, 자제'로 맺어주는 프로그램도 진행하면서 산해는 우애를 배려하지 않고, 우애는 배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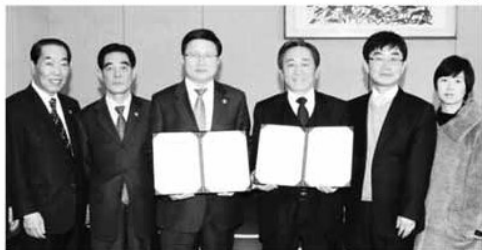
사전 예방이 최우선

학교폭력은 조기 발견이나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중요한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최우선이다. 인성교육 및 학생·교사 간 유대 강화 등을 통해 학교를 '행복한 환경'으로 만드는 것만 사전 예방의 조건이 최우선 과제이다.

요즘을 우리나라 학생들은 폭력 게임의 늪 속에 빠져 있다. 폭력 게임 속에서 거대 괴물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번에 걸쳐 때려야 하는 가운데 폭력이 난

중부매일

2012년 02월 03일 (금)
06면 인물



충북도의회-청주대 인력양성 협약 (의장 김형근)와 청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학과장 양병기)는 2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특성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중도일보

2012년 01월 20일 (금)
19면 충북

"지방도 82호선 국도 승격 시급"

도의회 건의안 채택... 도로 조기 확포장도 요청

충북도의회는 19일 306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부처에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의 국도 승격과 4차로 확포장을 조기에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서 도의회는 "충북과 강원도에 위치한 제천~평창간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이 2개도, 3개 시·군을 통과하는 주요 간선도로이며, 충북을 관통하는 거리는 9.1km로 충남북, 대전, 영호남권과 평창을 연결하는 도로"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도로망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현재 82호선은 노폭이 협소한 2차로로 선형이 불량하고 경사가 심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불류비를 통한 증가되고 있어 도로의 선형개량과 화·포장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건의안은 이번 건의안 채택을 통해 82호선 국가지원지방도가 국도가 됨으로써 충북이 부담해야 할 토지보상비 등 도로조성 사업비가 획기적으로 감액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의회는 강원도 시·군 의장협의회와 보조를 맞춰 건의문을 채택한 만큼 실현성이 밝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주=박근주 기자



건강상식

간경변 (간경화)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내과전문의 이경수

간경변은 만성 간염 등이 오래 지속되어 간세포의 손상이 심해진 경우 간에 ‘흉터’가 생긴 것을 말한다. 피부에 상처를 입은 경우 조그만 상처는 그냥 아물지만 큰 상처는 딱딱한 흉터를 남기면서 아물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간세포의 손상이 아물면서 간에 ‘흉터’가 생기면 간경변이 되는 것이다. 흔히 간경화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간경변이 옳은 용어이다.

우리나라에서 간경변의 대부분의 원인은 만성 B형 간염이 오래 지속된 결과로 간경변이 되는 것이다. 그외 C형 간염도 최근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고 알콜성 간경변도 있다.

가끔 자신이 만성 간염인지 전혀 모르던 상태에서 갑자기 간경변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만성 간염의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간경변은 그 자체로서 문제보다 동반된 합병증이 문제가 된다. 간경변의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나 합병증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간경변’이라고 하고 간경변이 심해짐에 따라 복수, 식도출혈, 간 뇌병증 등의 합병증이 나타나는데 이 경우를 ‘합병증을 동반한 간경변’이라고 한다.

간경변 상태를 정상상태로 완전히 회복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은 아직 없고 더 이상의 간기능의 악화를 막는 것이 간경변 치료의 주된 방법이다.

합병증이 생기지 않은 간경변의 경우 치료는 만성 간염과 비슷하다. 즉, 더 이상의 간세포의 손상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약물의 복용을 피하고 건강보조식품이나 약초 등의 무분별한 복용을 피하는 것이다. 또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고 술을 피하며, 정기적인 내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 것이다.

합병증이 생긴 간경변의 경우 복수, 식도출혈(피를 토하게 되거나 검은 진득진득한 변을 보게 된다), 간뇌병증(사람이 멍해지고 심하면 헛소리 등을 하게 된다) 등이 발생하면 내과 전문의의 진찰과 치료가 필수적이다.

내과 전문의의 진찰과 치료에 의해 합병증이 어느 정도 조절되면 환자는 싱거운 음식을 먹고 지나친 고단백 음식의 섭취를 피하는 등의 식이조절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식이조절 방법은 담당 의사가 환자상태에 맞게 지시해 줄 것이다.





세무상식

납세자 사전권리구제 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국세의 부과처분(고지) 전에 이에 대한 적법여부를 미리 심사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 국세행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다. 이는 고지서를 받고 나서 이의신청 등 사후권리구제를 통해 고지된 세금을 취소 받는다 하더라도 그 동안은 압류된 재산의 활용과 처분이 제한을 받게 되고 대외적 신용도가 저하되는 등의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지난 1981년 처음 시행된 이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당초 국세청 훈령으로 운영되던 것을 국세기본법으로 법제화하고, 적용대상도 확대(고지하려는 세액 500만 원 →

300만 원)했다.

청구절차는 세무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업무감사 및 세무조사파생자료 등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경우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으로 서면으로 청구(적부심사청구서)하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30일 이내로 그 결과를 통지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문의 하면 된다.

어디서나 편리한 모바일 서비스

납세자가 PC로만 이용이 가능했던 홈택스와 국세법령정보 조회를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 2월 10일(금)부터 스마트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 모바일은 민원증명신청 및 처리결과 확인, 양도소득세·증여세 자동계산, 국세환급금과 세금포인트 조회 등이 가능하다. 현재 홈택스 모바일 민원증명 신청은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을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 상반기에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금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된 질의회신, 심사·심판, 판례 등 9가지 종류의 정보를 무료로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접근하여 이

용할 수 있다.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한 번의 사용자 인증으로 국세청의 모든 모바일 서비스를 하나의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통합 앱’을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앱스토어를 통해 내려 받아 사용하면 편리하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된다.

<청주세무서 제공>





세계유기농엑스포 성공을 기원하며

정 현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신묘년을 마무리하던 작년말, 멀리 독일에서 ‘2015년 세계유기농엑스포’가 우리 지역에서 개최된다는 낭보로 괴산은 큰 희망에 들떠 있다.

그동안 인간은 농업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병해충 방지를 위해 과다한 화학비료와 농약을 남용했다. 이로 인해 토양은 손상되고 지구의 환경은 오염되어 인간의 삶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손상된 토양을 복원하고 지구가 녹색호흡할 수 있는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기농업이고 4년 후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충북 괴산에서 개최되는 세계유기농엑스포인 것이다. 그동안 괴산지역은 주변도시의 산업화로 인구가 유출되어 현재 3만 7,000여명에 머물러 있고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낙후되었다는 이미지가 매우 강한 곳이다.

그러나 괴산은 전통적 굴뚝산업인 제조업이 발달되지는 못했지만 청정농업 지역으로 친환경 농업군(郡)이라는 이미지가 강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은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또한 최근 국가간 FTA 가속화로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우리 식탁을 점령하여 농민들은 가뜩이나 시름에 잠겼는데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세계유기농엑스포 개최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즉, 충북 괴산이 청정농업을 바탕으로 유기농산업의 발전과 기술혁신을 통해 이 지역을 유기농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여 충북농업을 한 단

계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세계유기농엑스포인 것이다.

물론 세계유기농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괴산이 유기농업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의 조달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괴산군이 세계유기농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전폭적 재정지원과 국민 모두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국제적 행사를 치르고 난 후 잔존시설의 활용계획이다. 대부분 행사의 성공여부를 행사장에 방문한 방문객수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 행사가 끝나면 잔존시설에 대한 체계적 활용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규모 행사이후 남아있는 잔존물에 대한 활용계획을 제대로 세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디 유기농엑스포를 통해 행사에 활용된 시범농장 등 다양한 시설물을 적극 활용하여 향후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기적인 유기농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제적 학술대회 개최를 적극 유치하여 괴산군이 유기농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농촌, 국가경쟁력 키우는 한 축이다

권 기 수 의원(건설소방위원회)

2010년 7월 충청북도의회 9대의원으로 등원한 후부터 지금까지 도정계획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균형발전을 크게 내세우고 약속을 하고 있으나 실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강력한 중앙집권제도 하에서 국가경제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토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인구의 48.8%가 밀집되어 있으며,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는 성공을 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중앙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지속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 지방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1년 7개월간 지역 의정활동에서 느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지방은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는 감소되는 기본 농산물 생산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화·개방화의 진전으로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으나 어느 분야이든 경쟁은 피하거나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활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

농업에 있어서도 이제는 어떤 품목을 생산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고급화하여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상품을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더욱이 중국의 WTO가입과 한-칠레 간 FTA타결, WTO의 DDA협상과 최근 한-미 FTA협정체결 그리고 중국과의 FTA가 체결된다면 우리의 농업은 앞으로 더 높은 파고를 넘어야 한다.

둘째는 농촌도 젊은 층의 취업대상지가 되어야 한다. 농촌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됨으로써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이 먼 단위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학생 수가 없다는 것이다.

먼 단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5~10명에 불과하여 먼 단위에 있는 중학교 역시 입학생이 없어 이제 몇 년 안 가서 먼 단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통합을 하거나 문을 닫을 형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우리의 농촌이 고령화로 우리의 농업을 이어갈 젊은 층이 없다는데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우리의 농촌이 젊은 층이 외면하는 곳이 아니라 젊은 층이 취업의 대상으로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해야 할 정책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농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에서 이 분야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자 한다.



“충북도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청원안내

■ 청원서 제출방법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성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원서 제출사항

-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표지
-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구제 요구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 처벌 요구
- 조례, 규칙 제·개정 등 자치단체 소관업무 등

■ 청원서 문의

- 의사담당관실 : 043)220-5151 ~ 5155

민원안내

■ 진정서 등 제출

- 진정서는 청원서 외에 진정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의견서 등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민원제출방법

- 우편민원 :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68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 : <http://assem.cb21.net>의 토민발언대에 글쓰기
- 전 화 : 043) 220-5151
- 팩 스 : 043) 220-5159

방청안내

■ 방청권 교부

- 방청권은 의회사무처에서 교부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
- 방청시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준수

■ 방청권 신청

- 의사담당관실 : 043) 220-5155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